

한국 경찰의 창설기 치안·국방활동에 관한 연구

오 문 균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I. 序 論

1945년 10월 21일 美軍政廳 傘下 警務局 (The Police Bureau)으로 출발한 한국경찰은 1999년 올해로 창설 54돌을 맞는다. 日帝로부터 자의에 의한 독립이 아닌 미국과 소련 군대의 힘을 빌어 얻은 국권의 회복이었기에 경찰의 창설 역시 미국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 경찰의 창설이 빠른 것은, 그 당시 좌익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의 쟁취를 위한 治安不安의 이유 때문이었다. 당연히 창설의 과정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했어야 했으나, 그 당시 치안상황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창설 54돌이 되는 오늘까지도 日帝下 強權 統治하에서 일제의 지시를 최 일선에서 집행했을 뿐임에도, 日帝보다 악독한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제의

하수인으로써 다수의 독립군을 체포, 구금하고 탄압했다는 비난의 굴레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현상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自主的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결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제하의 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유독 경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汚名의 정도가 지나치다.

그것은 경찰이 치안행정의 권한을 최 일선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경찰의 일제하에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광복후의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없었던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명예롭지 못한 처사는 앞으로도 당분간 明快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난 歷史를 회고하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치 못한 것은 경찰만의 잘못이 아니며,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 오히려 1945년의 光復 이후 1950년의 6·25사변에 이르기까지의 남한내의 한정된 지역(북한 지역은 광복도 되기 전 25~30만명으로 추정되는 소련군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었음)에서의 계속된 좌·우익의 충돌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1948년 8·15일 정부수립까지 계속된 좌익들의 조직적 蠢動이 친일의 잔재를 剔抉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찰의 立場에서는 비록 늦었다고 하지만 지난날의 功過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즉 日帝 하에서 잘못된 행적을 솔직하게 밝히는 작업을 행해야 할 때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찰이 군을 대신하여 치안의 최 일선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수립이 가능했던 긍정적 측면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한 점에서 경찰은 54주년 현재까지 主體的 노력이 미흡했다.

한 예로 6·25사변에서 경찰은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는 과정에서 유엔군에 정식 編入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수했으나, 그런 점에 대한민국 국민들 혹은 경찰들까지도 인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사실상 북한 공산정권의 계속적인 도발과 남한 내 좌익들의 극단적인 도발이 행해진 準 전시상태의 1945~1950년의 경찰의 행적에 대한 연구다.

결국 親日警察의 문제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채 美 군정청의 경무국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초기 경찰의 행적에 대한 한정된 연구다. 그리고 軍을 대신하여 국방의 최 일선을 담당했던 경찰 창설을 전후한 활동에 대한 연구다. 일제하의 경찰의 활동이나 行蹟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此後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가 심층적으로 행해지길 바란다.

Ⅱ. 光復直後 韓國의 政治狀況과 警察의 創設

1. 南·北韓의 政治狀況과 治安狀態

예상보다 신속하게 방대한 량의 군을 동원하여 북한의 전역을 占領하고 掌握한, 소련군 지배의 북한체제의 치안실상을 먼저 간단히 언급한다. 그 당시 소련군은 敗走하는 일본군을 격퇴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평가의 25~30萬의 군대와 잘 훈련된 500여명의 정치요원을 帶同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소련군의 소령 신분으로 북한에 入城한 김일성이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체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남한 정치상황의 정확한 판단은 북한지역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1) 北韓의 政治狀況과 治安狀態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진격해 들어가 평양

에 「北朝鮮駐屯 蘇聯軍司令部」를 설치한 것은 1945년 8월 25일이다. 司令官은 소련군 제25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소련군은 그 이전에 북한에 진주해 있었다. 명목상은 滿洲에서의 日本軍의 무장해제였지만, 실상은 만주를 통과하지 않고 한반도의 북단 동해안을 통해서 8월 9일 북한지역에 진주했었다. 이미 미국에게 무조건적 항복을 했으며 戰意를 상실한 日本軍의 무장해제를 위해서는 예상외로 많은 20~30萬으로 추정되는 大軍이었다.¹⁾

이외에도 소련군은 精銳화된 500여명의 정치위원을 대동했다. 이러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의 경우는 첫 사업으로써 평양을 비롯한 북한전역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授權政權機關으로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한다. 정권기관으로서 人民委員會는 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이 승리한 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혁명정권의 형태로 조직된 것으로서, 북한전역에 공산당 독재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국원을²⁾ 대동한 소련군이 입성하여 강권적 통제를 가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아주 미약했으며, 몇몇 북한지역의 공산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남한의 서울에서보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³⁾ 대신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자가 평양에 머물렀으나, 극소수 反共의 민족주의자들이 25~30萬으로 추정되는 소련 軍人과 500여명의 정치국원들이 주도하는 공산화를 막기에는 力不足이었다.

1945년 8월 17일 曹晩植을 中心으로 하는 「평남건국준비위」가 결성되고 평양시민과 북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8월 25일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가 발족한 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으며, 소련군부에 反對하는 어떤 단체나 주장도 존재할 수 없었다. 民族主義 성향의 국내파 공산주의자에 해당하는 玄俊赫은 소련 지시하의 공산독재 정권의 수립보다는, 자주적 민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주장하다가 1945년 9월 평양시 大路에서 赤色테러에 의해 암살 당한다.⁴⁾

점차 소련군의 가혹한 統治行爲는 그것의도를 더해갔으며, 이에 對抗한 어떤 형태의 조직적 저항이 불가능했다. 다만 신의주의 모든 중등학생 3500명이 反蘇, 反共의 시위에 가담했다. 이에 소련군은 비행기와 탱크까지를 동원하여 학생들을 무차별 진압했다. 학생들의 피해는 사망 23명, 부상자는 700여명에 달했다.

1) 完植, 金泰瑞, 北韓三十年史, 서울, 현대경제일보사, 일요신문사, 1975, p.63.

2) 위의 책.

3)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 오름, 1995, p.64.

4) 韓載德, 한국의 공산주의와 北韓의 역사, 내외문화사, 1965, 「근로자」pp.198~199.

그 후 북한 전역에서 反共과 反蘇의 어떠한 저항행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지역 전체는 좌·우 혼란의 남한지역과는 달리 1945년 11월 18일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공산당 1당 체제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⁵⁾

2) 南韓의 政治狀況과 治安狀態

북한지역이 일찍부터 공산주의 1당독재의 정치체제로 일사분란하게 운영되는 반면, 미국 군정의 통치 책임하에 놓인 남한의 경우는 달랐다.

그 당시 日本軍을 주요 타격의 대상으로 했던 미국은 日本과 동시에 한반도까지를 관리할 병력의 여유가 없었으며, 중점적인 관리의 대상은 日本과 日本軍의 전후처리였다.⁶⁾

따라서 남한의 치안상황은 소련지배하의 북한지역과 달리 혼란 될 수밖에 없었고, 예상외로 미군의 남한으로의 진주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일제 권력과의 협의하에 남한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좌익들이었다. 특히 여운형은 右派 民族陣營이 상해의 臨時政府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하며 觀望하는 사이 「建準」을 결성하고 어느 세력보다 먼저 진주하는 미군에 접근한다. 미군의 진주가 임박한 9월 4일 여운형은 그의 동생 여운홍을 대표로 英語

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3명의 요원을 미군이 상륙이 예정된 仁川에 급파한다.

미군의 진주를 환영하는 여운형의 私信을 휴대한 이들 건준대표단은 9월 8일 미군이 체 상륙하기도 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하지가 탑승한 함선에 승선하는 데까지는 성공하나 결국 만나지는 못한다. 다만 하지의 참모장 카빈을 만나는데 그친다. 이들은 카빈에게 자신들이 建準委員長 여운형의 私信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그것을 전달하고 건준의 입장을 하지에게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울을 출발할 당시 급박한 정치상황속에서 建準이 해체되고 人共이 장차 수립될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데 반하여, 하지는 서울의 일본 정보기관으로부터 무전보고를 통해 人共의 선포사실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것이었다.⁷⁾ 이는 역으로 건준의 위원장 여운형의 경우까지도 공산당을 지휘할 實權이 없었으며, 이미 남한공산당까지를 소련공산주의자들과 코민테른의 지도부가 일찍부터 장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미군측에 자기들과 한민당 창단구성원 8명이 포함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한국인의 명단과 친일적 한국인들의 명단을 제출한다. 물론 이는 건준이 임의로

5) 韓載德, 金日成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p.194.

6) 고지마노보루 저, 김민성 역, 韓國戰爭 상, 종로서적, 1981, p.9.

7)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행림출판사, 1979, p.48.

작성한 것이었다.

어쨌든 여운형의 이같은 미군에 대한 태도는, 좌익계열학자들마저도 새롭게 부상하는 남한내의 미국 실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機會主義的인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⁸⁾

결국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남한의 미군정의 시작은 북한의 실상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갔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예정된 상태의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그에 따른 좌·우익간의 갈등이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1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어 38선의 철폐와 남북한의 통일정부 수립이 논의될豫定이었으나, 철저히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염두에 둔 소련의 의도에 의해膠着되었고, 이어서 2월 5일 예비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다.⁹⁾

그리고 본회의는 3월 20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예상대로 5월 6일에 결렬되고, 무기 휴회를 선언했다. 1차 미·소 공동위의 결렬은 38선을 사실상의 군사분계선화한 사건이었고, 좌익들은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民族陣營의 분열책동에 들어간다.¹⁰⁾

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特徵은 소련의 의도를 간파한 전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열기가 식어진 상태로 개최된다. 그러나 소련과 국내의 좌파들은 1차시기와 달리積極的 모습을 띠며, 우익 민족진영은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에서 참여파와 非參與派로 나뉜다. 이런 2차 미·소공동위의 진행이 소련과 국내 좌파의 주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민족우익진영의核心인 이승만과 김구는 참여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분열된 일부 우파 민족진영은 참여를 하며, 좌익주도에 의한 참여 청원서가 제출되는 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는 425개, 북한의 단체는 36개였다. 남북한 양측의 참가단체 총수는 무려 461개의 정당 사회단체에, 등록된 인원수는 7천 만명이었다. 남북한 人口의 3배에 이르는 숫자였다.¹¹⁾

결국 제2차 미·소공동위는 8월 들어서急激하게 증가한 좌익들의 불법투쟁에 의해서 결렬되고 만다. 이러한 과정의 내면은 사실과는 달리 반민족적인 좌익진영이, 민족진영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美軍政 주도의 남한 내에서,蘇軍政 주도의 북한지역과는 달리 그 후의 사회분위기를 좌익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했으며, 좌익세력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역설적으로 이런 남한사회의 혼란은 일제

8) B.커밍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986, pp.234~250.

9) R.E. 라우터 백 저,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한국미군정사, 서울, 돌베개, 1983, p.94.

10) 위의 책, pp.95~98.

11) 양동안 등, 現代韓國政治史,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1987, pp.88~89.

하의 악랄한 일본경찰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광복 후 경찰의 창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내의 좌익들은 미·소공동위의 결렬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조직을 확대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좌익들의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대두한다. 따라서 舊 組織의 복원이 용이한 경찰들이 좌익들의 준동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 左翼의 治安掌握과 韓國警察의 創設

1) 建準의 治安權 引受와 治安隊 發足

일제말기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들과 일본군 관계자들은, 日帝의 패망을 예견하고 재한 일본 居留民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한국의 유력한 지도자들과 정권을 이용하는 의도의 협상을 전개했다. 우선적 협상의 대상은 송진우와 장덕수, 김준연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상해의 臨政에게 유일한 授權 資格이 있다고 거절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敗亡한 日帝 지도부 의중에 대체인물로 떠오른 것이 여운형이었다.

여운형은 총독부의 제의를 즉각 수용했으며, 일본황제 히로히토(裕仁)의 항복선언이

방송되기 4시간 전인 15일 오전 8시경에 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도(遠藤)의 관저에서 우선적으로 治安權을 인수받는다.¹²⁾ 패망한 일제의 자국민 보호와 좌익들의 정권 장악을 위한 기회주의적 형태가 교묘하게 일치된 형태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의 목적은 日帝의 한반도 통치기구인 총독부로부터 인수한 치안유지의 권한을 ‘行政權’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운형과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공산주의자들의 核心인물이었던 이강국, 최영달, 정백 등은 상해의 임정과는 관계없이 일본이 패망하기 전인 8월 15일 이전부터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다음날인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발표했다. 이처럼 좌파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이하 建準)가 신속하게 결성이 된 것은, 명목상 日本과의 불가침 조약의 상태에 있던 당시 소련의 서울 주재 영사 「니콘라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情報를 독점적으로 提供한 것에 기인한다.¹³⁾ 또한 소련공산당과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광복된 한반도에서의 기득권 쟁취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북한 진군은 물론 서울로의 진격까지를 유포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8월 15일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소문속에, 공

12)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출판사업부, 1998, p.51.

13) 체신부 編, 電氣通信史, 資料 I, 宋南憲, 韓國現代政治史, 서울, 成文閣, 1986, pp.59~60.

14) 위의 책, p.60.

산당원을 포함한 많은 인파가 서울역으로 몰려가는 사태가 전개되기도 했다.¹⁵⁾ 혼란된 정치 상황속에서 재한 일본거류민단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제로부터 사실상의 치안권을 인수한 여운형의 건준측은, 16일 아침 건준의 발족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민중에게 건준 지도부의 布告에 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을 서울 일원에 살포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여운형은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군중연설을 통해 건준 발족 사실을 직접 알렸으며, 오후 3시에는 안재홍이 건준 부위원장 자격으로 경성방송국에 가서 건준 발족 사실과 건준의 기본활동계획을 발표하는 방송연설을 했다.¹⁶⁾

이는 일제가 장악하고 있던 사실상의 행정권이 잠시나마 좌익의 建準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고, 동시에 좌익들의 공개화시점이었다. 그리하여 8월 15일부터 9월 6일 共産黨의 소위 「朝鮮人民共和國」의 발표에 이르는 20일 동안은, 치안부재의 혼란상태인 남한사회의 光復政局을 左翼系가 先取한 것을 의미한다.¹⁶⁾

이런 현실 속에서 좌파 중심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치안대가 결성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광복과 동시에 야기된 혼란된 분위기는 극단적인 治安狀態의 紊亂을 당연히 초래했다.

예정된 手順을 밟아 여운형은 당시 YMCA 체육부 간사이고 유도사범으로 있던 張權으로 하여금 치안대를 조직케했다. 좌파 여운형 주도의 건국치안대는 청년 및 학생 2千名을 동원하여 서울 시내 치안을 장악케하고, 각 지역별 및 직장 중요기관별로 치안대를 조직케 하여 專門大 卒業 以上 학생 200명을 각지에 파견하여 치안대를 조직케 하고 사회질서를 담당케 했다. 그러나 이들은 급조되고 과거의 치안유지 경험이 없었고, 합당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점이 많았다.

특히 武警部 소속 치안대라는 명목으로 日人의 상점, 공장 기타 중소기업체들을 강제로 접수 점령을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이런 행위는 좌파내에서도 極左的 過誤를 범했다는 지탄도 받았다.¹⁷⁾

2) 美軍政廳 警務局의 創設

실무 경험 不在속의 남한 공산화 전제의 정권 장악 목적 중심의 건준에 의한 치안대의 정상적 활동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인 경찰은 韓國人들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敗戰軍을 무장경찰관으로 개편하여 각 경찰서에 배치시켰다. 그들은 행정기구중 경찰기관의 파괴를 기도하는

1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 記録, 東京, 巖南堂 書店, 1964, p.80.

16) 宋南憲, 앞의 책, p.60.

17)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7, p.21.

일제시대 경찰서를 통한 주민 억압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중요 비밀문서를 소각하기도 했다. 敗戰 日本 警察의 이런 행동에 기존의 한국인 경찰들은 격분하여 상호간 일촉즉발의 위기와 긴장이 한 때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 경찰들은 일제시대 소위 '왜경의 앞잡이'였다는 비난 속에서, 오히려 식민경찰의 학정에 시달려 온 국민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되고, 전국 각처에서 주민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구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살해까지 했다.¹⁸⁾

이런 현실 속에서 전직경찰들은 대부분이 도망, 은신하는가 하면 지방으로 피신하여 구명에 급급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쳐 修正된 9월 7일의 미군의 상륙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면서 치안업무의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경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떤 사전 준비 없이 한국에 주둔한 美軍의 경우는 "한국은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미개국이다. 그곳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함께 사는 곳인데 새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적대적일 것이다"¹⁹⁾라고 평가한 無知의 소산에 의한, 외국인에 적대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치안유지의 필요에서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부 布告 제1호에 의한 근무처를 이탈한 韓國人 경찰관들의 복귀 요구였다. 그리고 1945년 9월 25일 軍政法令 第5號를 발표하며, 그 내용은 "조선내의 일반 인민은 其 종족을 불문하고 其 住所로부터 最近한 경찰서에 1945년 9월 23일 일요일 정오까지 화기,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전부 인도할 事"였다.²⁰⁾ 이러한 포고문의 대상은 남한사회의 치안권을 비공식으로 장악하고 있는 좌익치안경비대와 사회혼란의 주역을 담당했던 좌익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작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治安主體는 부재한 상태였다.

일제하의 경찰직제를 운영하며 혼란 된 치안 상황을 수습하던 미군정청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警務局(The Police Bureau)을 창설했으며, 그것은 군정법령에 근거를 둔 군정경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자체는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警察 運營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945년 12월 27일 경무국 고문인 W.H. 매클린 헌병대령이 서명한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이다.²¹⁾ 그리고 194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헌장이 공포되어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동년 9월 17일 경찰직제가 개편되면서 경무총감부 설치와 함

18) 警察廳, 警察, 五十年史, 1995, p.18.

19) 趙庸中, 美軍政下의 韓國政治現場, 나남, 1990, p.50.

20) 孫遠用 等 編, 國立警察, 五十年史, 1995, 경우장학회, 1995, p.5.

21) 경찰청, 앞의 책, pp.32~33.

게 제1관구청에서 서울지역을 분리하여 수도 관구경찰청을 창설하였다.

수도경찰이 탄생할 당시 국내의 정세는 좌익들이 주도하고, 美軍政의 준비부재에 따른 無能한 대처에 의한 원조 물자 분배의 不滿등이 주 요인이 되고, 이들 좌익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한 대구폭동 등이 발발하며 혼란과 無秩序가 계속되었다. 대구폭동의 경우 좌익 勞組團體員은 경찰관들은 집단 구타하는 등의 과격으로 치달았으며, 3개월 동안 73개 市·郡에 걸쳐 대규모적인 파괴와 소요가 있었으며, 좌익주도 폭동진압의 몫은 전적으로 경찰의 임무였다.

특히 좌익들의 경우는 그 당시 유일한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노조가 중심이 된 투쟁을 전개했었고, 경찰이 그들의 진압을 전담했다.²²⁾ 이런 특수현실 속에서 기마경찰대의 창설(1946. 2. 25일), 여자경찰의 창설(1946. 7. 1일 경무부 공안국 산하), 철도 경찰대를 창설(1946. 3. 5일)하고, 산하에 17개 경찰서를 開設하기에 이른다.²³⁾

한국 경찰들은 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의 탄생과 더불어 공산주의자들과의 사실상의 전선 없는 전투와 극도로 혼란된 치안수립의 두 가지 중요업무에 들어간 상태였다.

Ⅲ. 韓國 警察 創設期의 役割과 活動

1950년 소련과 그들의 使曠에 의해 북한정권이 발발한 6·25사변에서 軍은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그전에 軍이 부분적으로 한국사회의 좌익책동에 개입한 것은 1948년 4·3사건과 그 여파로서 일어난 여·순 반란사건의 진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軍의 개입은 경찰 역할의 補完의 차원이었다. 경찰은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전형적인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이념전쟁인 「6·25사변」의 전 단계로서, 연장선상에 있는 좌익들에 의한 여러 가지 형태의 한국사회의 혼란책동을 주체가 되어서 막아야 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컸다.

따라서 광복 정국에서의 창설 초기 경찰의 활동은 치안의 확보와 좌익의 투쟁을 저지하는 군대로써 역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1. 南韓 内部의 左·右 衝突과 警察의 役割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 이전의 경찰의 활동을 조명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로써 큰 意味를 지닌다. 그러나 학계에 공인된 책자나 논문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전의 전후사

22) 위의 책, p.78.

23) 위의 책, pp.49~54.

에서 경찰의 역할이 막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B. 커밍스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共産化하는데 적극적으로 있던 인공 혹은 인민위원회를 정당화했었다. 연장선상에서 “남조선의 반동들은 한때 38선의 폐지를 외쳐댔다. …… 그러나 지금은 38선의 폐지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남풍을 북으로 보내기는커녕 북풍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일성, 1946년 4월”²⁴⁾ 이라고, 김일성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면서, 광복이 된 지 1년 만에 북한은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많은 서구 관찰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제통치 종말의 필연적인 결과인 철저한 공산혁명을 완수했다²⁵⁾고 북한의 공산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학자 B. 커밍스의 이런 주장은 후에 남한내 修正主義史觀에 입각한 좌파들의 투쟁논리 정당화로 작용했다. 군대 자체가 제대로 된 편제를 갖추기 전 좌익들의 신속한 북한공산화와 남한까지의 공산화책동은 1950년의 일어난 6·25사변의 前 戰爭史로서 혹은 치안의 확보 일환으로 좌익들과 치열한 전투를 겪어야 했던 경찰들의 입장을 어렵게 했다.

초기 경찰들의 활동은 광복이후 좌익들의 책동에 대한 대응, 북한정권이 파견한 유격대(빨치산)과의 투쟁, 38선 경비중대인 북한군과의 충돌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光復後 左翼들의 暴動鎮壓

광복후 좌익들의 폭동과 경찰들의 대응은 발생한 순서에 의해서 1946년 10월의 대구폭동, 1948년 4월의 제주도 4·3무장폭동사건, 1948년 10월의 여수, 순천 반란사건과 더불어 6·25사변이 발발할 때까지 북한에서 남파된 3000여명에 이르는 빨치산²⁶⁾ 討伐作戰을 중심으로 하여 다룬다.

1) 대구 폭동사건과 경찰의 진압

좌익들에 의한 대구폭동 사건에 대해 국내의 좌파들은, 奎評이 주도한 최초의 전국규모의 총파업이었으며, 산하 조선철도노동조합이 미군당국에 점심식사 支給 등을 요구하며 나타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²⁷⁾ 또한 미군의 살인적 탄압으로 투쟁이 확대되어 남한 전역에 걸쳐 퍼졌고 民族解放鬪爭으로 바뀌었다²⁸⁾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10월 1일의 대구 폭동사건의 發端은 경찰당국의 不法

24) B.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下, 1986, p.247 재인용.

25) 위의 책.

26) 북한은 남한사회의 혼란을 목표로 총 12차례에 걸쳐서 빨치산을 일으켰으며 정식명칭을 「인민유격대」이다.

27) 한국민중사 연구회, 「한국민중사」2권, 서울, 풀빛, 1986, p.258.

28) 한국현대연구회,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공동체, 1988, pp.108~109.

의 좌익노조 건물에 내건 남조선 총파업 투쟁 위원회의 간판을 떼어낸 것에 기인한다. 그 후 좌익들은 10월 1일을 기하여 각 직장의 파업을 선동하며 총 3,000여명을 투쟁에 動員하였고,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들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면서 식량의 배급 증가와 월급의 인상을 요구했다.²⁹⁾

최근 들어서는 폭동의 순서와 이유가 뒤바뀌어 왜곡되고 있는 1946년 대구폭동에서, 경찰은 좌익폭도들의 중요한 타도대상이었고, 그만큼 피해도 컸다. 당연히 폭동에서 선제공격을 가한 쪽은 좌익이었다. 10월 2일 11시경 좌익폭도들은 중학생까지 동원한 400여명과 일반군중 15,000명으로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유치장의 죄수까지를 석방했다.³⁰⁾ 이날 18:00시 대구지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시기 좌익폭동세력들은 대구서 관할의 동촌(東村)지서 외 6개 지서 및 중앙파출소 외 9개 파출소와 달성경찰서 관하의 현풍지서 및 대봉동 파출소 외 3개 파출소를 점거하고 있었다.

10월 3일에 들어 대구에서 패퇴한 좌익폭도들은 성주, 칠곡, 고령, 영천, 경산, 의성, 군위 등지에서 수백명내지 수천명의 좌익세력과 동조세력들이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하고, 경

찰관들을 학살했다.

10월 1~4일의 단기간동안, 조선공산당의 宣傳術에 의거한 치밀한 계획과 指令 그리고 煽動에 의해서 야기된 대구폭동을 그 당시 좌익의 편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했었던 공산주의자 박일원은, 좌익들은 9월 총파업과 10월의 폭동 사건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성스러운 인민항쟁'이라 하나, 이것은 자기의 죄과를 은폐하려는 欺滿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³¹⁾

결과적으로 대구 폭동의 기간동안 경찰은 좌익 폭동세력의 중점 타도세력이 되었으며, 사망 39명, 부상 31명의 인명피해를 냈다.³²⁾

이외 경찰관서 등의 물적 피해는 30억여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좌익 폭도들에 의한 민간인의 피해는 사망 44명, 부상 56명이었다.

2) 제주 4.3무장 폭동 사건과 경찰의 대응

혼란된 광복정국에서 치안부재의 제주를 혁명투쟁의 근거지인 解放區로 만들고자 했던 사건인 제주의 4·3무장 폭동도 50년이 지나서 상황에서 현저히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조작이었으며 특히 이승만은 美帝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 분단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다수의 양민

29)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서울: 第1加除法令出版社, 1982), p.30.

30) 위의 책, p.31.

31) 박인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서울, 世界, 1984.

32) 尹長鎬, 앞의 책, p.20.

들을 살해했다고 최근 들어 수정주의사관에 의한 4·3사건의 평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³³⁾

제주도는 1945년 8월까지의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하였으나, 광복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육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 중에는 상당수의 좌익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었고, 38선 이남과 다르게 미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적 특성상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가 주민들에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좌익들은 남로당 제주당위원회 산하의 합동노조, 농민위원회, 민주애국청년동맹, 민주여성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남로당 군사부 직계로 '제주인민해방군'을 조직하였다. 사령관은 학도병 출신인 이덕구(32세)였으며, 역시 학도병 출신인 김달삼이 군사부 총책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한라산에 매물한 무기와 탄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갖추는 한편, 팔로군 출신들이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술에 의거해서 훈련을 했다. 이들 무장병력은 500여 명이었으나 동조자 1,000여 명을 합하여 총병력은 1,5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부대를 편성하여 산발적으로 경찰지서를 습

격하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는 등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섬 전체를 위압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점차 성장하였다.³⁴⁾

그 당시 미군정의 정세보고서인 'G-2보고서'는 1948년 4월 3일부터 4일의 期間중 좌익에 의해 선동된 좌익 무장대에 의한 일련의 파출소 습격으로 경찰관 4명, 우익 민간인 9명, 좌익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5명의 경찰관과 16명의 우익 민간인이 부상당했으며, 3명의 경찰관과 4명의 우익 민간인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제주신문》의 지면에 그대로 기사화된 내용이다.³⁵⁾

좌익무장폭도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인명 피해 역시 증가했다. G-2보고서에 의하면 4월 3일부터 29일까지의 피해는 경찰피살 9명, 부상 10명 민간인 부상 62명, 좌익폭동세력 부상 5명, 행방불명의 경찰 3명 민간인 행방불명 3명, 경찰관서 파괴 9채, 민간인 가옥 파괴 12채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³⁶⁾

좌익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4·3폭동은 제주지역 자체 경찰로서는 중과부적이었고, 경무부는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을 차출하여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환 총경으로 하

33)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 서울, 온누리, 1988, p.4, p.44.

34) 윤장호, 앞의 책, p.21.

35) 제주일보사, 제주신문, 1948. 4.3일자.

36) 조남현, 제주 4.3사건의 쟁점과 진실, 서울, 돌담, 1993, p.105.

37) 윤장호, 앞의 책, p.24.

여금,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통합 지휘케 했다.³⁸⁾ 서울에서는 별도의 철도경찰부대가 증원되었다. 1948년 4월 3일에 공식화된 폭동은 5월 15일 수원의 11연대가 투입됨으로서 기세가 겨우 꺾이고, 증파된 철도경찰 경비대만이 5월 21일 서울로 복귀했다.

연장선상에서 여수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지금의 총소리는 여수의 반동경찰이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싸우는 총소리다. 이제부터 경찰을 타도하러 간다, 또한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³⁹⁾

한마디로 光復政局에서 경찰이 처한 극한적인 어려움을 대변하는 사건이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좌익군대 주도의 반란군은 신속하게 여수를 장악하고, 순천의 홍순석 중위와 합류하고 10월 20일 15:00 순천까지를 수중에 넣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은 좌익폭동군대의 주요 타도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사건 초기 여수경찰서 전원 200여명은 비상소집되어 目障地의 경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을 능가하는 무장력과 조직력을 갖춘 반란군을 경찰이 제압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참여 경찰 대다수가 반란군에게 사살당한다. 순천경찰서 역시 상황은 유사했다. 순천경찰의 前哨가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삼거

리에 1개소대를 배치했으나 일거에 좌익 폭동군에게 10여명이 살해당한다.⁴⁰⁾

10월 20일 17:00 반란군은, 순천의 전 시가지를 점령하고 일반 좌익분자들과 중고등학생을 선동하고 무장시켰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른바 反動分子를 색출하게 하여 500여명을 인민재판이란 미명 아래 학살하였다. 특히, 순천지역에서는 경찰관 400여 명이 반란군진압작전을 펼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처럼 반란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자 民心은 동요되고 소박한 주민들은 실제로 공산정권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만큼 초기 좌익 반란군 대처의 중심축이었던 경찰의 피해는 컸다.

(2) 북한 파견 유민유격대의 토벌작전

북한이 파견한 인민유격대의 침투에 대한 군과의 협동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경찰이었고, 초기 대응은 경찰의 몫이었다. 북한의 인민유격대의 남파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의 1946년 9월부터 6·25사변 직전인 1950년 3월까지의 10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총 병력은 2,345명에 달했다.⁴⁰⁾ 여기서는 제1·2차 浸透의 背景과 經過, 10次의 종결사항을 중심으로 살핀다.

38) 유관중, 앞의 책, p.42.

39) 윤장호, 앞의 책, p.26.

40) 윤장호, 앞의 책, p.53.

우선 제1차 침투의 배경과 경과이다. 미군 정하의 남한에서는 1946년 9월부터 좌익계 신문의 停刊과 지도급 인물의 체포령(1946. 9.7)을 하달하며 남로당의 단속에 나섰다. 이에 점차 조직 붕괴의 상태에 직면한 남한 내 좌익들은 월북을 하게 되고, 이에 북한정권은 역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후방교란을 목표로 남파한다.

북한은 전문적인 남파 목적의 유격대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양 근교에 강동정치학원을 설치(원장 이호제)하고, 월북한 남로당원을 중심축으로 하여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목적의 유격전과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훈련과정은 군사반이 2개월, 정치반이 6개월이었다. 제1차 수료생이 배출되자 북한은 남파에 앞서 38도선에 인접한 동해안의 양양 인민유격대 훈련소에서 재훈련을 시키면서 침투시기를 노렸다.⁴¹⁾

북한이 파견한 인민 유격대의 토벌 역시 성격상 경찰이 먼저 그 사실을 탐지하고 초기 대처를 했다. 그후 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했으며, 군대의 보조 역할이 아닌 대등한 국방활동의 일부로서 유격대의 침투로 차단과 수색 및 토벌업무를 맡았다.

강원 경찰국장 송병섭 경무관은 11월 13일 북한의 유격대가 38도선을 넘어 침투했다는 첩보에 따라 관할 전역에 비상경계령을 하달

하고, 권호철 경감으로 하여금 홍천, 평창, 횡성의 각 경찰서 병력과 본국 및 원주서에서 차출된 2개 소대병력으로 대처했다. 권호철경감 책임하 토벌대의 지휘소는 둔내지서에 설치했으며, 태기산 웅봉에서 북한유격대 60여명과 조우, 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17일에는 원주 주둔의 국방경비대 제6여단, 제8연대 3대대가 출동하므로써 군경합동에 의해서 유격대를 토벌했다.

이외의 인민유격대의 남파와 그에 따른 수색과 토벌의 경우도 대부분 6·25사변 以前の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적들의 동태를 경찰이 먼저 발견하고, 후방의 군과 연계하여 토벌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북한정권이 남파한 제2차 유격대는 1949년 7월 1일을 기하여 400여명의 인원이 오대산맥을 경유 7월 7일 京江國道를 횡단하고, 8일 새벽 평창군 도암면 호명리에 침투한 사건이다.⁴²⁾ 여기서는 평창서의 본대 기동대와 봉평, 속사리, 계촌의 3개 경찰대가 맞섰으며, 뒤늦게 참여하는 과정이었던 월정·유동경찰대는 오히려 북한 경비대에게 기습을 당했다.

북한 공산정권의 마지막 유격대 투입은 1950년의 6·25사변이 임박한 1950년 3월의 시점이었다. 경북 보현산 일대에서 전멸 직전의 위급한 국면을 가까스로 극복한 김달삼부

41) 위의 책, p.53.

42) 위의 책, p.56.

대의 북상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10차로 김무현·김강호가 각각 지휘하는 2개 부대의 인민유격대 700명을 동부지역으로 동시에 남파하였다. 이부대들은 남한에서 월북한 좌익 극렬분자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김무현 부대 350명은 방대산 지역으로, 김상호 부대 350명은 오대산을 타고 남하하였다.

1950년 3월 하순 인민유격대가 방대산에 출현하여 남하하는 것을, 홍천경찰서 관할 내면지서에서 탐지하였다. 홍천서(서장 김성기 경감)는 1개 중대 병력을 적의 예상 침투로인 소개인리 및 대개인리에 배치하여 4월 1일 접근하는 적을 급습하였다. 그러나 인민유격대의 방대한 규모로 인해 토벌의 핵심은 제8연대 1대대가 담당하였다.

한편 김달삼은 엄호하기 위한 또하나의 인민유격대가 남파되었는데, 그것은 김상호부대다. 350명의 인원으로 3월 24일 양양을 통해서 침투했다. 김상호부대는 주문진 경찰서(서장, 정복희)가 먼저 첩보를 입수하고 오대산 동대령에서 대치했다. 그 후 본격적 토벌은 제8사단 10연대가 담당했다.⁴³⁾

2. 3·8선상의 北韓 蘇聯軍의 挑發과 警察의 役割

오늘의 휴전선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에 의

한 사실상 南北韓間 작전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국경선이라면 3·8선은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임의로 그어진 지도상의 한 선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침예한 남북한간의 左·右, 美國과 蘇聯의 이해가 충돌하는 국경선이었고, 이러한 3·8선 경비의 많은 몫은 자연히 경찰이 맡아야 했다. 국군이 3·8선의 경비를 정식으로 담당하는 것은 1949년 1월 이후였으며, 그전까지는 경찰이 3·8선의 북한군의 준동에 대한 경비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제7사단의 예하병력을 용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지구로 주둔시켰으며, 자연스럽게 38선이 접경한 경기도 강원도 경찰국에서는 경찰서와 지서를 補強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당시 38선 접경의 全 地區에서는 북한의 38경비대가 수시로 不法 越境하여 가축, 식량, 물품을 약탈하거나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었다.⁴⁴⁾

1950년의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 3·8선 상에서의 경찰과 북한군 혹은 소련군대와 충돌은,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지역과 강원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京畿道에서의 衝突

제일먼저 경찰과 북한군 혹은 소련군이 충돌한 것은 포천경찰서 관내의 38선 접경인 청

43) 위의 책, p.56.

44) 유관중, 앞의 책, p.53.

산, 양문, 창수 등지였다. 그 당시 북한지역에서는 남한을 자유스럽게 왕래하며 농사나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남쪽에서 북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 공산정권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태에서, 남한지역에 대한 소련군과 북한 보안대원의 침략과 약탈이 자행되었다.

그러던 중 첫 衝突이 1947년 11월 26일 19:00시 창수지서 관내의 임풍동에서 일어났다. 임풍동지역의 경우는 38선에서 이북 쪽으로 500m지점이었으며, 행정 체계상 住民들의 蘇聯軍政의 지시를 받기를 거부하며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는 남한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他意에 의해서 임으로 분단이 확정된 한반도의 상황을 대변하는 비극의 현상이었다.

북한의 보안대원 20여명이 내습하여 部落을 경비중이던 대동청년단원 1명을 사살하고 주민 10명을 납치하여 갔다. 이에 창수 지서장은 즉각 5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으나, 소수의 경찰로서는 200여명에 달하는 북한보안대원을 감당할 수 없었고, 본서로부터 60명의 응원군을 지원받아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그 후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目陣地를 지키며, 선두로 침투한 북한의 보안대원을 공격하여 보안대원 5명을 사살하고 30여명 부상자를 발생케 했다. 쌍방간의 충돌에서 남한측이 승리하여 일단 임풍동의 주민들

은 잠시 북한지배하 蘇軍政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북한 보안대원들의 출몰은 거듭되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는, 평야 지역을 이루고 있어 敵과 我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기도 서부 지역에서 빈번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찰은 항상 군대보다 앞서 그들의 징후나 침투로를 포착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 때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948년 말부터 소련지배하의 북한군은 국군이 38선 일대의 미군 境界哨所를 引水하고 요충지 경계진지를 구축하자 국군의 배치상황을 탐색코자 본격적인 정치 군사활동을 시작했다. 창수지서 관내에서의 충돌 외 북한군의 주요침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49년 1월 27일 새벽 북한의 38경비대 2개소대 병력이 황토동 부락을 내습했으며 치안국 보안과 작전계장 최치환 총경까지 내려와 작전을 지휘했으나, 경찰 자체로서 역부족이었다. 결국 군경 합동으로 퇴치할 수 있었다. 1949년 2월에는 개성 정면의 여현지서와 배천경찰서가 북한 38경비대에 의해서 동시에 침공을 당했다. 1949년 5월 17일에는 북한군 1개 중대가 치악산 지역의 우포지서, 양천지서를 침공하고 배천시가를 점령했다. 19일야 군경의 합동작전으로 탈환할 수 있었다.

1949년 5월 19일에는 용진서 서북쪽 24km

45) 위의 책, p.56.

46) 윤창호, 앞의 책, p.80.

지점의 국사봉 일대에 북한군 1개 연대가 침투하였으며, 문석재 용진서장은 경기도경의 경찰 300여명을 동원하여 북한군과 1차로 대치했다.⁴⁶⁾

2) 江原地域에서의 衝突

강원도지역의 서부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인 관계로 주로 동부지역에서 북한군대의 浸透와 그에 따른 接戰이 있었다. 특징은 동해안과 면해있는 지형적 영향의 특성상 소련군대를 포함한 북한군의 침투가 자주 있었으며, 주로 남한지역의 물품을 약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북한군측에서 자행한 주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이다.

1946년 10월 17일 북한의 양양보안서 하광정 분주소장 이철희가 보안서원 20명을 이끌고 강릉서 대치지서 관내 대치리에 침투하여, 농작물을 약탈하고 순찰 경비중이던 어성전지서 경찰 4명, 농민 30명을 북으로 납치했다. 경찰은 이들과 교전하여 분주소장 이철희를 사로잡아, 신병을 교환했다.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건이다.⁴⁷⁾ 이외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수확한 농작물의 강탈사건이 1947년 10월 29일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장리지서장 김기환이 주문진서와 인구지서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홍윤기 순경이 사망했다. 그 후 50여명의 본서 경찰지원을 받아 수습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는 동해안쪽 역시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경비를 인수한 상태에서 북한군과의 무장충돌이 빈번했으며, 1949년 2월 2일 주문진서 관할지역에서 북한군의 불의의 습격이 있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북한군의 월등한 화력으로 인해 주문진서 병력은 역부족이었으며, 강원도경의 250명 증원과 육군부대의 도움으로 7개 지서를 탈환할 수 있었다.⁴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해안에서는 소련군의 출몰도 빈번했다. 1946년 12월 3일에는 소련군이 지휘하던 북한 38경비대 10여명이 박만수 경위 등 경찰 4명이 납치되었으며, 이들은 원산감옥에서 피살 혹은 獄死한 것으로 뒤에 밝혀졌다. 1947년 4월 10일에는 소련군 5명이 북한의 38경비대 1개 소대를 지휘하여 가축과 농작물 등을 약탈했다. 소련군이 참여한 사실은 술에 만취한 소련군 1명을 경찰이 생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⁴⁹⁾

한편 지형이 험악한 강원도의 서부지역의 경계선에서는 북한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도발한 사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인제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했

47) 위의 책, p.80.

48) 위의 책, pp.82-83.

49) 유종관, 앞의 책, p.54.

50) 윤장호, 앞의 책, pp.275~276.

다. 주요사건은 1948년 12월 20일 275고지에 대한 북한 38경비대의 공격이다. 내무부차관 강석천이 치안국장과 함께 작전을 지휘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월등한 화력으로 대응함에 275高地의 정상만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⁵¹⁾

이외 1949년 3월 11일에는 인제경찰서 북쪽 천지곡방과 장수대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 4개 소대가 원대지서를 공격했으며, 1949년 8월 6일에는 북한 38경비 제1여단 소속의 1개 대대가 38선을 월경하여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에 침공 681고지와 704고지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배치된 國軍 제7연대의 경계 진지와 신남지서를 공격했다.⁵²⁾

결국 1950년의 6·25사변은 소련군과 북한 공산정권의 계속적인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들의 고의적이며 야만적인 도발행위를 대부분을 최초로 알아내고 對應한 것은, 組織 編制 자체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경찰이었다. 그에 상응하는 만큼 경찰의 피해는 컸다.

IV. 結 論

금세기의 마지막인 1999년 10월 21일의 경찰의 날은 한국 경찰 창립 54주년이 되는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안된 상태이며,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檢.警의 수사권 분리독립이라는 원초적인 문제마저 매듭이 안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우리의 초기 경찰의 태동이 충분히 준비된 우리의 自力에 의한 출발이 아니고, 광복이후 좌익들이 남한까지의 공산화를 전제로 한 극단적인 사회 혼란속에서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으로 출발한 것 등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점은 항상 경찰의 위상과 관련하여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日帝의 하수인으로서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격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정국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沒理解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경찰들은 일제의 주요 통치수단으로써 작용을 했고, 결국 외형상 일제의 치안 대리자로서 양민을 괴롭히고,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日帝의 강권적 통치에 따른 강요의 產物이었지 자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지배 국가들은, 피지배상태의 自國民을 내세워 민족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는 도구로써 경찰을 活用했다. 日帝의

51) 위의 책, p.85.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日帝의 식민지 지배의 야만성과 강성화에 따라서, 경찰의 위상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비록 경찰이 他意에 의한 강요된 상태에서 국민들을 억압했음에도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해야 함은 우리 경찰의 임무였다. 그러나 창설 당시부터 오늘까지 상황은 그럴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어느 분야보다도 光復 후 혼란을 수습해야 했던 입장에서 경찰은 既存의 틀 속에서 급조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까지 제대로 된 재평가 작업조차 없었다. 특히 유사한 권력 체계 성격의 검찰이나 군과는 달리 경찰의 창설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최근들어 경찰의 자력에 의해 친일의 잔재를 벗고자 하는 그리고 국민의 경찰로써 거듭나고자 하는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늦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이후 국민의 경찰로써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光復 後 새로이 창설된 경찰과 역할에 대한 극히 일부의 역할과 활동 연구 내용이다. 초기 경찰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에서 前, 後方에서의 사회혼란, 좌익들의 조직적 跋扈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강대국의 편이에 의해서 임으로 그어진 3·8선을 중심한 소련군과 북한 38경비대의 도발을 방어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초기경찰의 피해도 컸다. 그러한 초기 창설 경찰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形成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본 研究가 계기가 되어 한국 경찰의 客觀的 평가에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